

미래 교화 환경과 교당교화구조 개선에 대한 토론

장성교당
이성일

소태산 대종사님의 성불제중과 제생의세의 서원과 경륜인 원불교 교법을 시대에 맞게 구현하고, 세상에서 원불교에 대한 요청이 가득해지는 날을 만들기 위해 애쓰신 발표자 교무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가 자리한 여건 내에서 작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교법의 현실구현을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 듣기의 고단한 과정이 필요함을 실감하면서, 오늘의 주제인 미래 교화 환경과 교당교화구조 개선을 위해 참된 지혜를 구하는 치열한 토론 과정의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발표 자료를 통해서 교당교화구조 개선을 위해 제시한 많은 과제에 대해 공감하며, 앞으로도 더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그 과정에 고려할 점들에 대해 몇 가지를 살펴보고 제안합니다.

① 가장 크게 보이는 것은 노령화된 소규모 교당에서의 취약성입니다. 현재 교당 교도님들의 노령화로 인해 교도 훈련을 비롯한 각종 활동에서 교화의 안정된 진행이 어렵고, 경제적 자립을 비롯한 교당 여건의 차이에 따른 저조함과 그와 관련된 책임과 부담과 과제가 전적으로 현장 교무의 몫으로 남는 느낌이 있습니다. 통폐합 논의 이전에 자구 노력을 지원하는 중앙총부(교단)의 노력이 구체화되어 현장에 지속적으로 전달되어야 하겠습니다.

② 교화단의 현장 운영에서는 고령화된 교도님들의 분포를 감안하는 지원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중앙총부 차원에서 현장 교화단회에 참여하는 연령대의 차이, 이해도의 차이 등을 고려하는 교화단 운영 방안의 제시도 필요하겠습니다.

③ 중앙총부 차원에서 교화단의 이해와 운영, 일원상의 진리를 비롯한 원불교의 교리 영상을 다양하고 흡입력있게 제작하여 유튜브 등을 통해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면 좋겠습니다. 시대에 맞는 교재개발과 활용에 대한 역량 발휘가 요망되는 시기입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납득이 되고, 감동이 있고, 다가서고 싶고, 함께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나는 교재의 개발과 제시가 필요합니다. 여력이 부족한 현장에 도움이 되고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④ 교화단의 중요성에 대비해 현장 교화단의 실제를 면밀하게 진단하고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이 제시해 주신 교화단의 운영에서 우리의 정성이 여러 측면에서 부족한 현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발표문에서 언급된 것처럼 한국 교회가 유럽 교회의 쇠퇴 흐름에 일률적으로 적용될지는 의문입니다. 한국 교회에는 교육관이 대부분 별도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한국 교회 교육관의 설치와 운영이 한국 교회의 부흥에 어떻게 연관이 되고 있는지를 연구해서 외부를 통해 원불교의 교화단 운영에 참고할 부분을 찾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⑤ 원불교는 교리를 통해서 처처불상을 말하고, 각자 각자는 작은 우주와 같이 독립성이 있으며 신비롭고 존엄한 대상입니다. 같은 교당 공간 내에서의 교역자간에는 일방적인 관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역자간의 관계 개념의 재설정과 그에 따른 중앙총부와 교구의 세심한 배려와 재교육이 중요하겠습니다.

⑥ 교역자간의 성별 차이를 비롯해서 이에 따른 가족 부양과 독신 생활에 대해 서로의 이해와 조치가 부족한 상황이 현장에서 노출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현실 인식을 시작으로 제도와 여건의 개선, 지원 대책의 마련 등의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⑦ 문화 교화도 단순히 여가의 측면만이 아니라 교도님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감성을 만나게 하는 중요한 교화 요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성가는 가까이에서 수월하게 접하며 교화에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인데, 현장의 여건은 피아노 반주자가 없는 등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관련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고 외부의 소규모 교회들의 활용 사례 등을 참고해서 속도와 높이 등까지 고려하는 활용성있는 원불교 성가 반주기를 개발하고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아노, 첼로 등의 양악기와 가야금, 생황 등의 국악기를 활용한 성가 연주 음악의 녹음 제작과 함께 다양한 가창자의 성가 음원의 제공이 교화 현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⑧ 입교 안내의 과정, 신입교도 교육 등에 대한 절차의 마련을 요청하는 교도님들이 있습니다. 개별 교당에 맡길 것만이 아니라 중앙총부 차원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교화의 세부 매뉴얼을 만들어 제공해 가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전체와 지역 단위로 다양한 분야에서 세부 절차를 함께 마련해서 명시하며 제공하고 있는 천주교 등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교화의 분야별 사례와 절차를 제시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장의 마련과 활용에서 원티스 교역자광장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교당을 통한 교화 활동이 교도님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의 교화상황이 보여주는 현실이 있습니다. 감동을 주고 교화의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선은, 교도님들과 세상의 요구를 제대로 알고 거기에 부합하고 있는지를 거듭 되짚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당 교무님들의 마음이 현장에서 중앙총부에 감동을 받고, 기댈 수 있다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오늘의 교화 현장이 가지고 있는 취약성과 어려움을 내려놓고 함께 극복하며 새로운 낙원을 힘차게 건설해 갈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일원상의 진리를 알고 함께 실천하는 과정이 아닐까 궁구해 봅니다.

어려운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을지 모르는 자만과 무명을 함께 내려놓고, 진실로 세상 속에 개벽의 종가로서의 그 기반을 마련하는 궤도에 제대로 오를 수 있도록 많은 숙의와 실천을 함께 진행하고 축적하기를 희망합니다.